

국힘, 헌재 흔들기... '탄핵 심판 불복' 빌드업하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정치 편향 제기 헌재 9인체제 가능성에 중립성 부각...민주 "반국가적 망동" 비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흡석 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친분 등을 주장하며 공정성·중립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미선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흔들기' 공세가 강해진 것은 연휴가 끝난 뒤부터 바로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이 예정되어 있어 '헌재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견대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헌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崔대행, 오늘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

국무회의의 주재...여야 합의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관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늦게나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 합의해 위험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 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협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험적 요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의 개최 여부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2월 1~2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31일 국무회의 소집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차관회의의 안건도 처리해야 해서 31일 국무회의는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하는 정식 국무회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민주 "尹, 사법 절차 지연 꼼수 멈춰야"

尹 설 메시지 비판... "내란 일으키고도 잘못 인정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을 쏟아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제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 났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이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했다"며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파벌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다면 꿈 깨라"라며 "국민의 뇌리

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모습만 선명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씨가 눈곱만큼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꼼수나 부리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만나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나,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 때문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거듭 밝히며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으며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가 전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정, 다음주 경제·사회분야 대책 점검

민생 점검 당정협의회 2회 개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일 밝혔다. 2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

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2월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정책위는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당정협의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현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어려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